

스택전자[スタック電子株式會社] 일본 국내시장 100%를 장악하다

(1) 기업개요

소재지	東京都昭島市武蔵野
설립연도	1971년
분야	전압 · 주파수 계측기용 전압검사단자
자본금	7천만 엔
URL	http://www.stack-elec.co.jp

(2) 생산 제품

2003년 9월 18일 정기적으로 행해지는 일본 천황의 산업시찰 일정에도쿄에 위치한 스택전자라는 회사가 포함되어 있었다. 주로 대기업을 방문해 오던 기존의 관행을 깨고 1990년대의 오랜 불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일본경제의 탄탄한 기초체력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대표적인 기술 집약형 중소기업을 찾은 것이었다.

스택전자는 고주파(高周波)와 관련한 전송기기와 전자계측기에 필요한 부품을 생산하는 중견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그 중에서도 전압 · 주파수 계측기의 심장부로 일컬어지는 전압검사용 단자 시장을 100% 장악하고 있다. 즉 일본에서 전압 · 주파수 계측기를 만드는 모든 회사에 공급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일본 국내시장 점유율이 100%에 육박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해외 업체 중에서도 스택전자의 전압검사용 단자만을 고집하는 기업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압검사용 단자뿐 아니라 위성통신장치에 사용되는 제품의 80%는 스택전자의 브랜드로 직접 판매하고 있을 정도로 시장에서의 브랜드 인지도가 높다. 독창적인 기술을 구사한 제품으로 대기업의 단순한 하청기업이 아닌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받으며 성장을 하고 있어, 다른 중소기업에게 모범적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3) Only-One 기술

스택전자의 전압검사용 단자가 세계 시장에서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였을까? 그것은 다른 아닌 회로에 장애를 주지 않는다는 데 있었다. 전압 · 주파수 계측기는 전자기기 등이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는가를 검사하는 기기이다. 전압검사용 단자는 이 검사에 쓰이는 부품으로 업계에서는 ‘전기(電氣)의 청진기’로 불린다.

통상적으로 기계류를 검사할 때 가동을 중지시키고 하는 것이 제일 간단하다. 그러나 가동을 일부라도 중단하면 생산라인을 전부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 이런 경우 회로에 장애를 주지 않는 스택전자의 전압검사용 단자를 사용하면 생산라인을 멈추지 않고 검사를 할 수 있다.

종래의 전압검사용 단자는 가동을 멈추지 않으면 검사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스택전자의 제품은 업계의 상식을 깨뜨리는 획기적인 것이었다. 이 제품의 개발로 스택전자는 일본시장뿐만 아니라 세계시장까지도 장악할 수 있었던 것이다.

전압검사용 단자 분야에서는 세계 제일의 업체로 인정받고 있지만 현재는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 정도로 감소한 상태이다. 이렇듯 비중이 감소한 것은 전압검사용 단자의 매출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다른 각종 전자계측기기, 통신기기용 부품 등의 매출 비중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들 제품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위성통신장치, 고주파 전송기기 및 휴대전화 등의 정보관련 장치에 이용되고 있다. 따라서 실

제로 완성품 시장에서 스택전자의 사명이 거론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관련 부품업계에서는 기술력을 인정하는 유명한 회사로 정평이 나 있다.

일본 경찰청에서도 범인 검거에 장애가 되는 휴대전화 도청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스택전자의 고주파전송기기를 사용하고 있다. 지금의 스택전자는 전압검사용 단자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인정받고 있으나, 원래는 고주파전송기기와 관련된 고도의 기술을 보유한 사원들이 모여 설립한 회사이다.

즉 회사를 창업하고 10년이 지나 원점으로 돌아가 ‘고주파전송기기의 전문 업체’로 거듭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에서 진입장벽이 유난히 높은 것으로 정평이 나있는 방송·위성·통신기기 시장에 과감하게 도전한 결과,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며 신제품을 연이어 출시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제3세대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2GHz대역의 지상중계국 안테나 장치에 설치되는 기계류는 스택전자의 높은 전송기술이 만들어낸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 안테나의 방향을 변경하지 않고 송수신전파의 범위를 조정함으로써 통신영역을 자유자재로 조정하는데 성공했다. 이 기술의 개발 성공으로 휴대전화의 통화 혼잡정도를 크게 완화하는 것에 기여할 수 있었다.

(4) 성장과정과 향후 전망

스택전자는 1971년에 창업하였다. 커넥터(connector)를 생산하는 대기업에 근무하던 기술자 4명이 독립해서 만든 회사이다. 창업자 4명은 당시 모두 20대의 젊은 기술자로, 가장 나이가 많았던 사람이 26세에 불과했다. 본사와 공장은 현재 사장 타지마(田島)의 자택을 그대로 사용할 정도로 자금여력이 없었으며, 4명이 당시 출자한 금액은 모두 합해 100만 엔이 채 안 되는 금액이었다. 스택(stack, スタック)이라는 사명은 4명의 이름 앞 글자를 하나씩 붙여서 만들었다. 타지마(田島)사장은 20대 전반부터 기술력을 당시의 근무회사로부터 인정받아 일본전자공업회의 JIS(Japanese Industrial Standard 日本工業規格)위원회 위원을 역임할 정

도였다. 사업초기에는 당시의 위원회 인맥에 의존하여 수주를 시도하였으나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창업한지 1년이 지나 겨우 제품의 기능을 인정받아 대기업으로부터 납품의뢰를 받았으나, 하청기업이 되는 것이 조건이었다. 어려운 경영환경을 극복할 절호의 기회로 생각한 다른 창업멤버는 조건을 수락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타지마는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독립해서 회사를 만들었다. 지금 회사가 어렵다고 하청기업으로 전락하면 영원히 그 구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반대했다. 결국 창업멤버는 1명을 남기고 모두 회사를 떠났다.

고주파전송기술을 기초로 한 전압검사용 단자를 관련 대기업들이 파트너로 인정하고 거래를 시작하게 된 것은 그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제품을 만들 자금이 문제였다. 일반 금융회사에서는 실적이 없는 중소기업에게 융자를 해 주지 않았다. 결국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자금이었다.

독립한 기업이 어려운 난관을 뚫고 성공한 사례로 보이지만, 스택전자의 진정한 강점은 생산제품의 80% 이상을 상장된 대기업에 직접 판매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사내에서 모든 것을 제품화하는 것이 아니라 제조의 거의 대부분은 외부기업에 의뢰하여 만들고 있다. 따라서 100명에 달하는 사원의 대부분은 연구개발 인력으로 창업 이래 줄곧 철저하게 기술 집약형 기업을 지향해 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스택전자 홈페이지(<http://www.stack-elec.co.jp>)

經濟産業省 中小企業庁編(2006), 『元気なモノ作り中小企業300社』.

黒崎誠(2003), 『世界を制した中小企業』, 講談社 現代親書.